



제26차 대한기생충학회 참관기

84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총회

■ 홍 성 중

이번 대한기생충 학회는 예년과 달리 의학협회에서 “의학발전은 인류의 구원”이라는 슬로건하에 주관하는 제24차 종합학술대회 기초의학연합학술대회의 일환으로 10월 12일 서울 남대문옆에 있는 힐튼호텔 국화A룸에서 열렸다. 기초의학학회가 모두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 동안 학술대회를 개최 함으로써 관심있는 분야에 회원 각자가 참석하여 발표된 연제에 대해 함께 토의함으로써 의학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옆방에서는 약리학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었으며 학술발표 회의 장밖 통로에는 다른 여러 학회에서 정성 들여 제작한 포스터들이 전시되어 있어 한층 분위기를 돋우고 있었다.

기생충학회의 등록은 오전 8시 30분 부터 시작되었으며 많은 회원들이 일찍 부터 나와 그 동안의 근황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9시부터 바로 연제발표에 들어가 10시 40분 까지 10개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11시부

터는 민흥기 회장의 인사말씀이 있는 다음 곧바로 1984년도 대한기생충 학회 총회가 진행되었다. 금년에는 기생충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오랜 세월을 기생충학의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시면서 “한국기생충학논저체제” 등 많은 논문과 저서를 발표하시고 금년 봄에 정년퇴임하신 朱鼎均교수님께 처음으로 공로상이 수여되었다. 또, 올해의 학술상은 “한국 농촌에 있어서 회충 제거에 대한 역학적 조사연구”로 서울의대 蔡鍾一 전임강사에게 수여되었다. 총무보고와 전년도 예산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어 안건토의를 끝으로 총회를 마치고 학회에서 준비한 점심을 전회원이 함께 했다.

점심식사후에는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17개의 연제발표가 휴식없이 바쁘게 진행되었다. 포스터 연제 10개는 학술회의장내의 한쪽 벽에 아침부터 전시되어 점심시간과 연제발표가 끝난후까지 관람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된 연제들은 모두 발표자를 비롯한 연구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연구한 흔적이 역력한 주옥같은 것들이었으며, 원충학 4편, 윤충학 31편, 의용곤충학 2편 등 모두 37편이었다. 윤충학은 선충류 3편, 흡충류 25편, 조충류 2편, 역학 1편 등이었다. 이번 종합 학술대회중에 기생충학회 회원에 의해 발표된 전체 연제는 면역학에 3편, 소화기 계통에 1편 등 4편을 합하여 모두 41편이었다. 모든 연제중 흡충류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내용상으로는 주로 면역과 치료에 관한 연구이었고 흡충류, 특히 간흡충에 의한 감염증이 우리

나라에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기생충 질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연제들을 모두 소개해야 하지만 지면 관계로 몇 편만을 골라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병원성 원충류에 관한 연제(연세의대)에서 램블편모충은 보육원아에서 18.3%, 일반주민에서 4.3%의 감염율을 보였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율이 높았다고 한다. 또 서울 및 인근 한강물에서 램블편모충의 포낭이 검출되어 상수도원으로서의 관리와 염소소독에 대해 검토하였다.

다른 한 편의 논문에서는 배양조건이 적합하지 않은 배지에서 배양하면 질트리코모나스의 크기가 커지며 병원성을 잃는다고 하였다.

새로운 광범위 구충제인 albendazole의 구충효과 및 작용(고려의대)에서 albendazole 400mg 단회 투여로 회충과 요충은 완전 구충되었으며 편충감염자에서는 90% 이상의 치료율과 충란감소율을 얻었다. 간흡충과 요꼬가와흡충의 경우 13%와 33%로 치료율이 저조했고 조충에는 전혀 치료효과가 없었으나 400-600mg을 1일 3회씩 3일간 계속 투여하면 거의 완전 구충이 가능하다고 했다. 시험관내에서 간흡충에 대한 살충효과를 발휘하는 최저 albendazole 농도는 100 μ g/ml이며 이 농도에서 12시간이내에 충체가 사멸했고 실험동물내에서는 2 \times 25mg/kg \times 2일 용량이면 살충효과를 인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투약 후 실험동물에서 얻은 간흡충 충체의 전자현미경적 관찰조건은 표피에 많은 소수포가 형성되었고 표피용기내에 액포가

형성되고 용기가 탈락되어 표피 기저부가 노출되는 작용을 하였다고 한다.

간흡충의 담관암 유발가능성(이화의대)에 대하여 간흡충 농후만연지역과 저만연지역에서의 역학조사결과 간흡충의 담관암 합병빈도는 간세포암과의 합병빈도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병리조직학적 연구에서 감염된 간흡충은 18개월동안 담관암을 일으키지 않았으나 암발생의 전단계인 담관세포의 증식, 선종성 조직증식, 배세포화생, 점액세포화생등의 소견을 보여 간흡충증은 담관암의 주요유발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형흡충류 및 간흡충 충란의 비교형태학적 검토(서울의대)는 충체의 자궁말단에서 얻은 충란들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는데 간흡충 충란은 난각의 주름과 난개가 뚜렷하고 후반부가 팽대된 난원형이었다. 한편 요꼬가와흡충 충란은 팽대된 긴 타원형이며 난개가 뚜렷하지 않으나 *Heterophyes heterophyes nocens* 충란은 요꼬가와흡충 충란보다 다소 훑쪽하며 긴 형태이었고 *Stellantchasmus falcatus*의 충란은 이들중 가장 훑쪽하고 긴 형태이었다. *Heterophyopsis continua*의 충란은 요꼬가와흡충 충란과 비슷하나 길이에 비해 폭이 넓었으며 *Pygidiopsis summa*는 크기가 가장 작으며 모양이 간흡충 충란과 비슷했다. 이러한 형태학적 특징과 크기를 비교하면 대변검사에서도 감별진단이 가능할 것이지만 궁극적인 진단은 구충제를 투여하여 충체를 얻어 종을 동정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흰쥐의 쥐주걱흡충 감염에서의 자연충체배출(중앙의대)은 일차감염된 흰쥐에 2주후 피낭유충을 재감염시켰는데 100개의 피낭유충을 감염시킨 군에서는 재감염된 충체의 회수율과 기생부위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1,000개를 감염시킨 군에서는 재감염된 충체의 회수율이 현저히 감소하고 기생부위도 소장하부로 이동했다.

시험관과 실험동물내에서 *Fibricola Seoulensis*에 대한 Praziquantel의 작용 및 효과(서울의대)를 보면 시험관내에서 살충효과를 나타내는 Praziquantel의 최저농도는 0.1 μ g/ml이었으며 이 농도에서 30분이면 모든 충체가 죽었다.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용액에 접촉하자마자 모든 충체가 사멸하였다.

사멸한 충체의 실절내에는 공포가 형성 되었으며 표피에는 소수포가 형성되어 파열되고 공포가 함몰되어 충체에 손상을 주는것이 광학 및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되었다. *Fibricola seoulensis*을 실험감염시킨 흰쥐에 Praziquantel을 5mg/kg이상 투여했을때 치유율은 85%이상이었으며, 투약후 60분이상 경과하면 충체가 모두 정상기생부위인 십이지장에서 회장과 맹장으로 밀려내려가는 것이 관찰되었다. 회수된 충체는 시험관내에서 얻은 충체와 마찬가지로 공포와 수포의 형성으로 인한 충체손상과 충체 장관내경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이 이외에도 훌륭한 논문이 많았으나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필자 = 서울의대기생충학교실)